

# 역신의 상징적 의미와 <처용가>의 감동 기제\*

박일용\*\*

## 〈차례〉

1. 서론
2. “變無人夜至其家”와 역신의 모습 논란
3. <처용랑 망해사>의 구조와 역신의 정체
4. 처용의 처와 疫神의 역사적 실체
5. <처용가>의 의미와 그 성찰적 기제
6. 결론

## <국문요약>

疫神이 등장하는 <처용가>의 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처용랑 망해사> 이야기는 신격의 경고를 무시하고 신격의 행세를 하다 나라를 망하게 한 헌강왕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용 이야기가 신격인 처용과 신격의 모습을 한 역신의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 역시 신격인 처용과 신격 행세를 한 헌강왕 이야기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疫神이 헌강왕의 타락상을 상징화한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처용랑 망해사>에서 처용은 자신과 처를 부부로 맺어준 헌강왕이 자신의 처를 범간하는 걸 보고 <처용가>를 부르며 춤을 추고 물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용가>의 화자가 역신의 간범 행위를 목도했으면서도

\* 이 논문은 2016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진흥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년 기간에 작성된 것임.

이 논문은 2016년 3월 26일 문학치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역신의 상징적 의미와 <처용가>의 치유적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하여 투고한 것임.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목도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그리고 그 상황을 아내의 가랑이를 빼앗긴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통해 <처용가>의 화자 처용은 현강왕으로 하여금 남의 아내를 물건처럼 주었다 빼앗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성찰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라고 노래함으로써, 처용은 자신이 느낀 분노가 ‘내 것’이라는 관념적 허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다.

주제어: <처용가>, <처용랑 망해사>, <현강왕>, <삼국사기>, <삼국유사>

## 1. 서론

<처용가> 그리고 그 배경 설화인 <처용랑 망해사>에 대해서는 연구사만도 거듭 집필되고, 중요한 성과를 간추려 7권의 연구 논문집이 간행되었을 정도로 양적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망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sup>1)</sup> 그런데도 연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처용랑 망해사>에서 疫神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역신과 처용의 처 및 처용 사이의 관계가 선명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에 이루어진 역신의 정체 및 역신과 처용의 처 그리고 처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처용가>의 시적 상황을 설화 또는 무속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역신을 말 그대로 痘疫, 熱病, 마마 등의 전염병이나 전염병을 옮기는 악신으로 보면서, 처용의 처와 역신의 관계가 전염병의 감염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주류적 흐름을 들 수 있다.<sup>2)</sup> 물론 설화나 무속은 <처용

1) 처용연구위원회편, 『처용연구전집(Ⅰ, Ⅱ-1, Ⅱ-2, Ⅲ, Ⅳ, Ⅴ-1, Ⅴ-2)』, 역락, 2005.

2) 손진태, 윤영옥, 서대석, 박기석, 황병익 교수 등 다수의 연구자들의 견해가 이에 속한다. 손진태, 『처용랑 전설고』, 『신생』, 1930(『처용연구전집Ⅱ-1』, 역락, 2005,

가>의 시적 상황을 역신의 간벌 형태로 상징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처용가>의 시적 상황을 곧바로 무속이나 설화의 연장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들에서는 처용의 행위가 巫覡의 治病 의례로, 그리고 역신의 굴복이 처용의 呪能을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나아가서 처용이 무조신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up>3)</sup> 경험적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역신의 존재, 그리고 아내의 간통 장면을 보고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물러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용의 태도를 무속 의례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처용이 동해용을 대리하는 무격에 해당하는 존재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처용이 현강왕 시기의 무격이었다면 치병곳은 이미 그의 고유한 직능이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용은 자기의 고유한 직능인 치병곳을 수행함으로써 구역 문신으로 숭앙되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렇게 보는 경우 처용의 신격으로서의 신성감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처용가>의 시적 상황으로서 처용과 역신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 역시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들 해석대로라면 역신에 대한 처용의 태도가 실체가 아니라 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처용가>가 역신을 즐겁게 하거나 역신을 위협하는 기능을 하는 의례적인 노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처용가>의 의미를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온당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에서는 망국 설화로서 <처용랑 망해사>의 전체 맥락에서 이러한 처용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가 고려되지 않는다

1~10면 재수록); 윤영옥, 「처용가의 동경」,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173~176면;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한국학논집』 1·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265~284면;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고찰」, 『정신문화연구』 34권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27~151면; 박기석,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읽기의 한 방법」, 『문학치료연구』 제1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65~184면; 김수경, 『고려 처용가의 미학적 전승』, 보고서, 2005, 27~42면.

3) 서대석, 위의 논문, 265~284면.

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처용의 처를 巫로 보고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에 기술된 처용의 처와 역신의 관계를 무속 집단의 특수한 행태와 연관 지어 해석하려는 견해들이 있다. 이들 해석은 약간의 편차를 보이는데 처용과 역신의 관계를 무속사회의 여권 우위 현상 및 여무의 입무 과정으로 해석한 김열규 교수, 김영수 교수, 처용의 처와 역신의 관계를 異客款待라는 무속사회의 특수한 습속으로 보려는 김동욱 교수, 처용의 처를 무녀 출신의 遊女로 그리고 역신은 토착적 남무이며 처용은 변방족 男巫라고 보아 이들 사이를 巫系 사이의 갈등 관계로 해석한 최성호 교수의 견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4)</sup> 이들 해석에서는 처용의 처와 역신 사이를 무속 세계의 특수한 관계로 해석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인상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짐작하기 어려운 처용 처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처용의 처가 왜 “역신”과 잠자리를 같이했는가를 합리적으로 해명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처용 처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용의 반응, 처용의 태도에 대한 역신의 반응, 그리고 처용의 문신으로의 좌정 과정 사이의 관계가 모호해진다. 이들 해석처럼 처용의 처와 역신의 관계가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경우라면, 처용과 역신의 관계는 굳어터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역신이 처용의 태도에 감복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째 부류와 마찬가지로 이들 해석 역시 <처용랑 망해사>의 전체 맥락과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셋째로 역신을 특정 계층의 인물로 보고 역신과 처용의 처 사이의 관

4) 김열규, 「처용 전승고-민속학적 입장에서-」, 『대동문화연구』 별집1, 대동문화연구원, 1972(『처용연구전집Ⅲ』, 역락, 2005, 175~185면 재수록); 김영수, 「처용가 연구의 종합적 검토」, 『국문학논집』 16호,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81~119면; 최성호, 「처용가 신석-문화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81, 국어국문학회, 1979, 5~25면; 김동욱, 「처용가 연구」, 『동방학지』 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1, 1~20면.

계를 역사적 또는 설화적 관점에서 해석한 견해들을 들 수 있다. 역신을 타락한 화랑들의 행위로 본 이우성 교수, 역신과 처용 처의 관계를 신라 하대의 상층 귀족의 퇴폐풍조로 본 박노준 교수, 역신을 육두품 지방 호족세력으로 그리고 처용을 진골 귀족으로 보고 역신과 처용의 관계를 이들 사이의 계층적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본 박진태 교수의 해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해석은 첫 번째 해석들과 대척적인 것으로서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을 사람 사이의 간통 장면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들은 이를 신라 말기의 타락한 역사적 세태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역신을 특정 집단에 속하는 인물로 비정하려고 했다. 그 결과 나라 사람들 특히 신의 춤을 흉내 내었다는 헌강왕이 신격들의 경고를祥瑞로 받아들여 탐락을 함으로써 나라가 망했다는 <처용랑 망해사> 전체 문맥과의 연관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역신과 처용의 처 사이의 관계를 특정 집단의 타락한 세태로만 규정한다면, 간통의 또 다른 주체인 처용 처의 태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처용 처의 태도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간통 장면을 보고 물러난 처용의 태도, 그에 대한 역신의 감복 및 처용이 문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극적 성격과 감동 기제가 모호해질 것이다. 역신과 처용 그리고 처용 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을 때, <처용가>의 시적 상황의 극적 성격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sup>5)</sup>

넷째, 처용 이야기를 설화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역신과 처용의 처 그리고 처용의 관계를 삼각관계 설화의 맥락에서 본 설성경 교수, 그들의 관계를 강자에게 침해 받은 민중의 비극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본 김학

5) 이우성, 『삼국유사소제 처용설화의 분석』,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처용연구전집Ⅲ』, 역락, 2005, 621~665면 재수록); 박노준, 『처용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처용연구전집Ⅱ-1』, 역락, 2005, 217~246면 재수록); 박진태, 『곳의 맥락에서 본 처용설화와 처용가』, 『외국어교육연구』 4, 대구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1989(『처용연구전집Ⅲ』, 역락, 2005, 527~566면 재수록).

성 교수, 처용과 처용의 처 그리고 역신 사이의 관계가 결혼 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의 간통과 그것을 본 남편의 용서에 해당한다고 본 정운채 교수 등의 견해를 들 수 있다.<sup>6)</sup> 이들 논의는 간통의 또 다른 당사자인 처용의 처의 처지를 현실적 관점에서 해석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 또는 타락의 상징으로서의 疫神을 처용 처의 연인이라 설명할 수 있을지, 또는 ‘몰래 함께 잤다’는 역신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관탈민녀형 설화처럼 설명할 수 있을지 하는 의의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신과 처용의 처 그리고 처용 사이의 관계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되었지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고에서는 <처용가>의 시적 상황 이해의 열쇠에 해당하는 역신의 존재 및 역신과 처용의 처 그리고 처용 사이의 관계를 실재 및 사실의 상징화 형태로 보고, 역신으로 상징화된 처용의 정체를 탐색해 보려고 한다. 그렇게 보는 경우 망국 설화로서 <처용랑 망해사> 전체 맥락과의 연관도가 높아지는 한편, 처용과 역신 사이의 긴장도가 높아짐으로써, 門神 또는 驅疫神으로 간주되었다는 처용의 신성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된 역신의 정체를 바탕으로 <처용가>의 시적 상황으로서 역신과 처용의 처 그리고 처용 사이의 실제적 관계를 재구해 봄으로써, <처용가>의 시적 상황이 처용과 역신과의 갈등 형태로 상징화된 이유, 그리고 처용이 문신으로 좌절하게 된 상징적 징표에 해당하는 <처용가>의 내포적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처용가>가 역신과 처용의 처, 그리고 처용 자신에게 유발하는 성찰적 효과로서의 감동 기제가 새롭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6) 설성경, 「처용 전승의 구조적 연구」, 『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처용연구전집Ⅱ-1』, 역락, 101~108면 재수록); 김학성, 「<처용가>와 관련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7~32면; 정운채, 「<처용가>와 <도량 넓은 남편>의 관련 양상 및 그 문학치료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14~230면.

## 2. “變無人夜至其家”와 역신의 모습 논란

삼국유사 기이의 <處容郎 望海寺> 가운데, <처용가> 관련 대목은 표면적으로 처용이 辟邪進慶을 하는 문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의 설명, 즉 자신의 아내가 역신에게 범간된 장면을 목격하고도 화를 내지 않고 물러나는 처용의 태도에 역신이 감복해서 처용의 얼굴을 보면 나타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처용이 문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는 처용신의 본풀이적 성격을 지닌 이야기로 보인다.<sup>7)</sup>

그런데, 이 가운데 “이로부터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형상을 문에 붙여 사특한 것을 피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았다(因此 國人門帖處容之形 以 辟邪進慶)”는 처용 신앙 풍속에 대한 기술은 “事實”에 해당하지만, 그 유래인 ‘역신이 처용의 처와 몰래 잤는데 처용이 들어와 이를 보고 <처용가>를 부르며 물러나자 역신이 감복해서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이야기는 경험적 “事實”이라 하기 어렵다. “疫神”이라는 초현실적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현실적 존재를 등장시키면서도 그것을 경험적 사실처럼 기술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신성적 상징의 틀을 빌어와 기술된 것으로서, 특정한 사실을 상징적 형태로 재구한 것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기술 체계에 내포된 “事實”을 읽어내는 한편, 그 상징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이야기 해석의 열쇠는 역신으로 상징화된 사실적 존재의 실체를 구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첫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그것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7) 其一子隨駕入京 補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變無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歌曰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盼隱吾下於叱古 二盼隱誰支下焉古 本矣 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 何如爲理古 時神現形 跪於前曰 吾美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因此 國人門帖處容之形 以辟邪進慶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이라는 구절의 표현이 애매해서 그 뜻을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조선 초기본으로 알려진 연세대학 소장 파른본(손보기본),<sup>8)</sup> 대다수 역주본의 대본으로 사용된 임신본(정덕본) 등 조선시대 판본에는 “其妻甚美疫神欽慕之變無人夜至其家竊與之宿”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교정 번역자들 사이에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 이견은, 첫째 1904년에 坪井九馬三이 교정한 동경제대본이나, 1914년에 靑柳綱太郎이 교역한 조선연구회간 삼국유사에서처럼 조선시대 판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으로 끊어 읽고, “역신이 이를 흠모하여 (모습을) 변하여 사람이 없는 밤에 그 집에 이르러”로 해석하는 경우,<sup>9)</sup> 둘째 최남선이 “變無人夜至其家”의 “無”자를 “爲”자로 바꾸어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로 끊어 읽은 이후,<sup>10)</sup> 그 견해를 받아들여 주석 없이 바꾸거나 주석으로 “無”자가 “爲”자의 오자라고 밝히거나 “變無(爲)人”처럼 괄호 안에 “爲”자를 제시하여, ‘사람으로 변하여’로 해석한 우리나라 대다수 교정 번역본들의 경우,<sup>11)</sup> 셋째 三品彰英 찬 三國遺事考訂과<sup>12)</sup> 한국정신문화연

8)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연세대학교 박물관 교감, 해안, 2016, 148~149면.

9) 朝鮮研究會刊 三國遺事에서는 본문에서는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으로 끊어 읽으면서도, “疫神之れを欽慕し 戀して人無き夜に其家に之り, 竊に之と與に宿す”로 번역하였다. “變”을 “戀して”로 해석하여 “戀”의 오자처럼 해석한 것이다. 한편, 小倉進平은 전체를 직역은 하지 않았지만 이 대목을 “或る時 疫神か之を窺視し, 人無き夜其の家に之って 竊かに之と通じた”로 번역하여, “變”을 해석하지 않고 “無人夜”를 “人無き夜(사람이 없는 밤)”으로 해석하였다. 『三國遺事中』, 坪井九馬三, 李寬 校訂, 東京帝國大學, 1904, 31~32면; 『三國遺事』, 靑柳綱太郎, 京城, 朝鮮研究會, 1914, 58면; 『鄉歌及び吏讀の研究』, 小倉進平, 京城帝國大學, 小和四年(아세아문화사, 1974년 영인본, 181면).

10) 홍재휴 교수의 고증에 의하면 최남선은 이미 1927년에 간행된 계명구락부본 삼국유사로부터 無자를 爲자로 바꾸고 1943년에 三中堂에서 간행된 新訂三國遺事에서도 그대로 고정했다고 한다. 홍재휴, 「처용랑 망해사 설화의 校訂字 辨正-처용랑 夫妻의 관용, 不眞說 辨政을 위한 주석적 고구-」, 『여성문예연구』 8집,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9, 85~106면; 최남선 편, 『신정 삼국유사』, 경성, 삼중당, 1946, 88~89면.

구원에서 출판한 강인구의 4인 편 역주삼국유사에서처럼 본문에서는 최남선의 교정을 따라 “疫神欽慕之 變爲人夜至其家”로 바꾸어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이르러”로 해석을 하면서도, 원문대로 한다면 ‘변하여, 사람 없는 밤에 그 집에 이르러...’로 해석된다고 주석을 다는 경우,<sup>13)</sup> 넷째, “疫神欽慕之 變無(舞)人 夜至其家 竊與之宿”으로 표기하여 “無”자가 “舞”자의 오기라고 교감한 김용옥의 三國遺事引得의 경우,<sup>14)</sup> 다섯째 첫째의 경우처럼 이 문장을 그대로 두고 “역신의 행위를” 병을 옮기는 행위로 해석하면서 “變”을 눈에 보이지 않는 역신을 뜻하는 명사로 보아,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를 “變이 無人夜에 至其家하여 竊與之宿하였다”로 읽은 홍재휴의 경우<sup>15)</sup>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간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조선시대 판본을 그대로 받아 들여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로 읽는가, 아니면 “無”자를 “爲” 또는 “舞”의 오자로 보는가의 둘로 견해가 나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無”를 “爲”나 “舞”의 오자로 본 견해들은, “變” 다음에 보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생략되어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및 “時神現形跪於前 曰”과의 호응 및 처용설화 전체의 의미 맥락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無”자를 교정하여 “變”의 보어를 확정하는

11) 이병도 역주본, 이재호 역본 등에서는 “無”를 “爲”로 바꾸었으며, 이민수 역본에서는 “無(爲)”로 표기하였다. 『원문 역주 삼국유사(수정판)』, 이병도 역주, 명문당, 1986, 67면; 『삼국유사』, 이재호 역, 한국자유교육협회, 1968, 880~881면;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75, 138~140면.

12) 三品彰英 撰 三國遺事考訂에서는 “變無(爲)人夜至其家”로 표기하고 “疫病神か彼女を慕うのあまり人の姿化して人氣のない夜そつとその家に訪ねていき”로 해석하면서, 주석에서 이는 古典叢書本을 따를 것으로서 원문대로라면 “變じて(化して)(人の姿に化けて)人なきの夜(人の居ない夜)に その家に至りて”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三國遺事 考証(中)』, 三品彰英 撰, 東京, (土高)書房, 1979, 147~150면.

13) 『역주 삼국유사(II)』, 강인구 외 4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25~126면.

14) 김용옥, 『삼국유사인독』, 통나무, 1992, 51면.

15) 홍재휴, 앞의 논문, 85~106면.

문제는 역신이라는 초현실적인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처용의 처와 “竊與之宿” 했는가 하는 것을 정하는 문제로서, 역신의 정체에 대한 해석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남선 이후 대다수의 우리나라 연구자들처럼 “變爲人夜至其家”로 바꾸어 읽는 경우, 이 대목은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이르러 몰래 더불어 잤다(變爲人夜至其家 竊與之宿)’로 해석되어, “몰래(竊)”의 의미가 ‘처용의 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몰래’의 의미로 굳어진다. 역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잠을 잤는데도 처용의 처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變爲”의 보어인 “人”이 강조되어 변하기 이전의 역신과 대조됨으로써, 어떤 사람인지는 부각되지 않고 “사람”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그 경우 이 이야기는 처용의 처가 처음 보는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한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다. 그런데, 만일 역신과 처용의 처 사이의 관계가 일회적인 것이라면 ‘몰래 그녀와 더불어 잠을 자는’ 상황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그것이 반복적 상황을 뜻하는 것이라면 역신이 처용의 처가 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났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홍재휴 교수가 “變”을 형체가 없는 귀신이라 하여 처용의 처 역시 역신이 침범한 것을 몰랐을 것이라 해석한 것은 이를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역신이 형체가 없는 “變”의 형태로 처용의 처와 잤다면,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에서의 “二人”이라는 표현과의 호응이 문제가 된다. 설혹 이 “二人” 가운데 하나를 처용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 “變”으로 본다면지라도, “時神現形跪於前曰”의 “現形”과의 호응이 문제가 된다. 역신이 형체가 없는 “變”이고, 처용은 그러한 “變”을 알아보는 존재라면 굳이 처용에게 “現形”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無”를 “爲”로 바꾸는 것은 전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역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모습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처용이 “잠자리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見寢有二人)”는 구절, 그리고

‘역신이 본래의 자신의 형체를 드러내었다(時神現形跪於前)’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바꾸면 변한 모습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를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킨다.

이와 달리, “無”를 “舞”로 교정한 김용옥 교수의 고정은 처용의 처와 사통한 주체를 불특정 다수에서 “舞人”이라는 특정 부류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여 <처용랑 망해사>에서 “舞人”의 실체를 추적해보면, ‘舞’를 하였다는 해룡이나 그의 아들인 처용, 그리고 남산신과 그 대리자 역할을 한 헌강왕, 地神 山神 등과 같은 신격이나 신격의 대리자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역신이 다른 신격의 모습을 했을 가능성은 역신이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적다. 처용의 처가 처용 대신 다른 신격의 대리적 존재를 택한 이유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역신이 처용의 모습을 했다면 자신의 모습을 한 역신과 자신의 처와의 잠자리 장면을 보고서 아내를 빼앗겼다면 물러났다는 처용의 태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논리를 따른다면 역신은 헌강왕의 모습을 하고 처용의 처와 사통을 했다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그런데, 기실 疫神이 헌강왕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처용랑 망해사>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無”를 “舞”의 誤記로 보지 않고서도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다.

### 3. <처용랑 망해사>의 구조와 역신의 정체

<처용랑 망해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 1) 헌강왕 때 경사에서 해내까지 초가집이 없었고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며 풍우가 순조로웠다.

2) 왕이 개운포에 갔다가 안개를 만나 길을 잃은 뒤, 용을 위해 절을 지으라고 명하자 안개가 걷히고 용왕이 나타나 춤을 추면서 왕의 덕을 칭송하였다.

3) 동해용의 일곱 번째 아들 처용이 헌강왕을 따라와 왕정을 보좌하였으며, 역신이 처용의 처를 흠모하여 범하자 처용은 노래를 부르며 불리났는데, 역신이 감복하여 처용의 얼굴 그림을 보면 침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 사람들이 처용의 얼굴을 붙여 僻邪進慶하였다.

2-2) 왕이 용을 위해 절을 지어 망해사라 하였다.

4) 왕이 포석정에서 홀로 남산신의 춤을 보고 따라서 춤을 추었고, 금강령에 갔을 때 북악신이 나타나 옥도검이란 춤을 추었고, 동례전 잔치 때 지신이 나와 춤을 추니 지백급간이라 했다.

5) 『語法集』에 지신과 산신이 춤을 추면서 智理多都波都波라고 하여 나라가 망할 것을 경고했는데, 國人은 이를 상서로 알고 향락에 빠져 나라가 망했다.

위의 내용 가운데 1)과 5)는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보이고, 2)와 3) 또는 4)와 5)는 서로 연관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연관 관계가 분명치 않으며, 2) 3)과 4) 5)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달라서 서로 어떤 관계인지 모호해 보인다. 그래서, 잡다한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2) 3)만을 독립시켜 연구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처용랑 망해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서의 形과 뒤에 감추어진 의미로서의 象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층적 형태로 구조화한 이야기이다. 예컨대, 4)는 겉으로 보면 신격들의 출현과 그에 대한 헌강왕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한편, 5)는 신라의 망국 이유를 설명한 글로서 신라인들이 신격들의 경고를 祥瑞로 받아들여 탐락을 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이렇게 따로 보면 각각의 내용을 어렵듯이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4)와 5)를 서로 비추어 보면 각각의 단락에서 감추어진

모습이 보인다. 5)를 4)에 비추어 보면 5)에서 망국의 주역으로 지목된 國人이 구체적으로 현강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sup>16)</sup> 4)를 5)에 비추어 보면 4)에서 이야기한 현강왕의 祥審舞가<sup>17)</sup> 신격의 경고를 오인한 망국적 탐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술자는 4)와 5)에서 각각 드러내고 감춤을 달리함으로써 현강왕이 망국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암시적 형태로 이야기한 것이다.

한편, 드러난 대로 보면 2)는 망해사 연기 설화이며 3)은 처용신의 좌정 설화로서,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며, 4)나 5)와도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2)를 4)에 비추어 보면 2)의 동해용이 4)의 남산신 북악신 지신 등과 같은 신격적 존재로서, 2)나 4) 모두 신격과 현강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다. 한편, 현강왕이 地神에게 급간 벼슬을 내렸다는 4)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3)의 처용 역시 그들 신격과 대등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처용과 역신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3) 역시 신격과 현강왕에 대한 이야기라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3)을 신격인 처용과 현강왕의 이야기로 보고 3)의 역신의 행위를 4)의 현강왕의 祥審舞에 비추어 보면, 역신의 간범 행위가 현강왕의 상심무에 해당하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祥審舞가 사람이면서도 제멋대로 신격을 흉내 내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현강왕의 탐탁 행위 이듯이, 역신의 간범 행위 역시 악신처럼 행동을 하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현강왕의 행위를 상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祥審舞가 탐탁적 성격은 감추면서 그것이 현강왕의 행위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례라면, 역신의 간범 행위는 탐탁적 양상은 생생하게 드러내면서 그것

16) 삼국유사에는 종종 다양한 집단을 지칭하는 國人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역사 학계에서는 각각의 경우 國人이 뜻하는 바의 해석에 공을 들인다. 여기서는 지배 계층의 타락을 대표하는 현강왕을 감추기 위한 표현 방식이라 해석할 수 있다.

17) 현강왕이 상심무를 추는 모습은 “궁인과 근신을 데리고 포석정에 나가 놀면서 술을 마시며 연회를 하다가 건훤이 오는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경애왕의 황음한 행위와 그다지 멀어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신격들의 경고를 祥瑞로 받아들여 탐탁이 자심했음을 보여주는 일반화된 징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헌강왕의 행위라는 사실은 감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2) 3)의 처용 이야기가 신격의 경고를 상서로 알고 탐락하다 나라를 망하게 한 헌강왕의 망국 행위를 비판한 4) 5)의 구체적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격의 대리인으로서 왕정을 보좌하다가 역신의 타락상을 보고 물러난 처용의 모습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 신리를 떠나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장차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신격의 구체적인 경고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용랑 망해사>의 기술자가 헌강왕을 망국의 주역으로 지목한 이유가 단순히 상심무 사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기술자가 祥審舞를 끌어 들인 이유는 드러내어 말하기 어려운 헌강왕의 간범 행태를 지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헌강왕은 처용의 처를 범간하여 婚外子 虯를 출생시켜 신라 왕실의 혈통을 어지럽힘으로써, 신라 왕실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추정된다. 상심무 사건이 헌강왕의 망국적 탐락 행위의 총칭으로서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타락상이라면, 처용의 처를 간범하여 혼외자 虯를 낳은 헌강왕의 패륜적 행위는 드러내어 이야기하기 어려운 타락상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이렇게 보면, 1) 역시 지금까지 읽은 2) 3) 4) 5)의 내용을 근거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기술자가 겉으로는 헌강왕이 성군이며 헌강왕 시대가 태평성대였다고 서술하면서도, 속으로는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헌강왕대를 태평성대로 언급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길찬 신흥이 모반을 하다가 사형을 당한 이듬해인 헌강왕 6년 9월 9일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왕이 월상루에 올라 시중 민공에게 지금 민간에서는 짚이 아닌 기와로 지붕을 덮고 나무가 아닌 솟으로 밥을 짓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라고 묻자 민공이 자신도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왕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서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을

18) 다음 장에 살펴볼 헌강왕의 아들 虯의 혈통 문제,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에 내포된 복잡한 사연이 기술자가 지목한 헌강왕의 망국적 타락 행위로 추정된다.

것이 넉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시정이 즐거워하니, 이는 왕의 어진 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즐거워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현강왕 시기가 태평성대였다는 이야기는 새로 등장한 세력의 아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대의 사치와 탐락 상황 그리고 현강왕의 현실 인식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19)</sup>

<처용랑 망해사>가 이러한 역전적 기술 방식을 취한다는 사실은 현강왕이 추었다는 상심무 즉 御舞祥審을 象審이라고도 했다는 기술자의 설명 속에 암시되어 있다. 象審이란 걸으로 드러나는 형상 이면의 모습을 읽어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강왕의 御舞祥審은 망국적 상황에 대한 경고를 祥瑞로 읽어 신격의 경고를 제대로 象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걸으로 드러난 당대의 상황 그리고 아침을 하는 시중 민공의 말만을 듣고 제대로 象審하지 못한 현강왕의 현실 인식에 상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자가 현강왕대가 태평성대였다는 1)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처용랑 망해사>의 의미를 제대로 象審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추정한 것처럼 역신을 현강왕으로 본다면,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에서 “變”의 생략된 보어가 현강왕으로서, 그것이 생략된 이유가 뚜렷해진다. 자신이 처용과 부부 관계를 맺어준 여인의 미모를 탐내어 범간을 한 현강왕을 形의 형태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變”의 보어인 “현강왕”을 생략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變”의 의미는 경험적 차원의 형체의 변화를 뜻하는 개념으로보다는, 역신으로 상징화된 현강왕이 실제적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으로 우회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 六年 春二月 大白犯月 侍中又謙退 伊瀆敏恭爲侍中 秋八月 熊州進嘉禾 九月九日 王與左右 登月上樓 四望 京都民屋相屬 歌吹連聲 王顧謂侍中敏恭曰 孤聞今之民間 覆屋以瓦不以茅 炊飯以炭不以薪 有是耶 敏恭對曰 臣亦嘗聞之如此 因奏曰 上即位以來 陰陽和 風雨順 歲有年 民足食 邊境謐靜 市井歡娛 此 聖德之所致也 王欣然曰 此 卿等輔佐之力也 朕何德焉

處容은 헌강왕이 자신의 정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해 데리고 와서 머물게 한 용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 즉 處龍이다. <처용랑 망해사> 기술자는 헌강왕이 그를 ‘머물게(處)’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欲留其意)’ 그에게 ‘미녀로 처를 삼게 해주었고(以美女妻之)’ ‘급간의 벼슬을 내려주었다(又賜級干職)’고 한다. 이렇게 자신을 처용의 처로 맺어준 헌강왕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그녀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통간하는 헌강왕의 모습을 본 처용의 충격과 배반감은 어떠했을까.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의 행태가 처용에게 발각되었을 때 헌강왕의 당혹감은 어떠했을까. <처용랑 망해사>에 기술된 처용의 태도, 역신의 태도, 그리고 아무런 언급이 없는 처용 처의 태도 등은 이러한 정황을 상상했을 때 가장 적실하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처럼 헌강왕이 처용 처의 미모를 탐해서 밤에 가서 사통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 타락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강왕 개인의 타락에서 나아가 국가 전체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술자는 이러한 상황을 역신의 침범이라는 상징 형태를 빌어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났다(乃唱歌作舞而退)’는 처용의 행위는 아내의 간통 상황을 목격한 남편의 행위이면서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왕정을 보좌하던 헌강왕의 신하가 헌강왕과 신라를 버리고 떠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술자가 인용한 ‘산신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智理多都波都波等者”라고 했다는 어법집의 말, 즉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미리 알고서 모두 도망을 가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라(智理國者 知而多逃 都邑將破云)’는 말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경고하면서 떠난 행위라 할 수 있다.<sup>20)</sup>

20) 한편, 기술자가 헌강왕이 동해용을 위해 지어준 절이 望海寺이며 新房寺라고 했던 것, 그리고 이 기사 제목이 “처용랑 망해사”인 것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암시한 것

## 4. 처용의 처와 역신의 역사적 실체

역신이 헌강왕을 상징한 것이라면,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의 해독 문제, 그리고 이 구절이 뜻하는 상황 및 이후에 보인 처용과 역신의 태도가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황은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처용의 출현과 헌강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 그리고 헌강왕의 아들인 효공왕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진성여왕 9(895)년의 기록에는 진성여왕이 조카 요(嶢)를 태자로 세우면서, 헌강왕이 사냥 구경을 하다가 길옆에서 한 미인을 보았는데 그 자태가 아름다워서 행재소에서 야합을 하여 그를 낳았다는 태자 嶢의 탄생 비화가 소개된다. 그리고 헌강왕 5년(879)에는 “11월에, 왕이 혈성 벌에서 사냥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sup>21)</sup> 또 진성여왕 11년에 왕위를 태자 嶢에게 선위하면서 당나라에 보낸 표문에서는 당시의 태자 嶢를 “年將志學, 器可興宗”이라고 소개한다.<sup>22)</sup>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후에 효공왕으로 등극하는 嶢는 헌강왕이 879년에 사냥을 나가서 행재소에서 민간의 미녀와 야합을 하여 880년에 출산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성여왕이 887년에 당나라에 보낸 <납정절표>에서는 정강왕

이라 해석할 수 있다. 동해용을 위해 절을 지어준 헌강왕의 행위는 용의 대리자인 처용을 머물게 하기 위해 미녀를 처로 맺어주어新房을 차려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망해사가 일명新房寺라 불렸다는 건 이를 뜻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헌강왕의 타락을 목도하고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處)’ 못하고 ‘얼굴만을 남겨두고(處容) 처용이 떠나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절’이란 의미에서望海寺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望海寺라는 이름은 얼굴 그림과 더불어 바다로 떠난處容의 자취로서, 그가 신라에 머물게 된 사연을 뜻하는新房寺라는 이름과 짝을 이루는 것이다.

21) 五年 三月 巡幸國東州郡 有不知所從來四人 詣駕前歌舞 形容可駭 衣巾詭異 時人謂之山海精靈[古記謂王即位元年事.] -중략- 十一月 獵穴城原. 三國史記11卷-新羅本紀11-憲康王 05年

22) 十一年 夏六月 王謂左右曰 近年以來 百姓困窮 盜賊蜂起 此孤之不德也 避賢讓位 吾意決矣 禪位於太子嶢 於是 遣使入唐表奏曰 臣某言 居義仲之官 非臣素分 守延陵之節 是臣良圖 以臣姪男嶢 是臣亡兄覬息 年將志學 器可興宗 不假外求 爰從內舉 近已俾權藩寄 用靖國災

이 즉위한 886년에 요가 태어난 지 한 해가 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한다.<sup>23)</sup> 이에 따르면 정강왕이 887년 7월에 사망했으니 요가 태어난 해가 885년이나 886년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기록의 내용들과는 달리 嶢의 나이를 5~6세 낮추어서 보고한 것이다. 이는 왕위 계승에서 요를 둘러싼 심각한 논란이 있었다는 걸 뜻한다. 헌강왕의 아들인 요를 제치고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못되어 죽은 아우 정강왕이 올랐으며, 또한 여동생인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嶢의 나이를 5~6세 낮추어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죽기 2년 전 嶢를 태자로 봉하면서 그의 혈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진성여왕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9년(895) 겨울 10월. 헌강왕의 서자 요를 태자로 새웠다. 처음에 헌강왕이 사냥 구경을 하다가, 길옆에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녀의 자태가 아름다웠다. 왕이 마음속으로 그녀를 사랑하여 뒷 수레에 태우고, 행재소에 와서 아합하였는데, 바로 임신이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가 장성하자 체격이 크고 용모가 걸출하므로 이름을 요라고 하였다. 진성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궁에 불러들여, 손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나의 형제자매의 골격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이 아이는 등에 두 뼈가 솟아 있으니, 정말 헌강왕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곧 관리에게 명하여 예를 갖추어 높이 봉하였다<sup>24)</sup>

23) 또한 남정절표에는 “저의 만형인 국왕 정이 지난 광개 3년(887) 7월 5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나, 저의 조카 요는 태어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저의 둘째 형인 황이 임시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또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又納旌節表云 臣長兄國王晟 以去光啓三年七月五日 奄御聖代 臣姪男嶢生未周晷 臣仲兄冕權統藩垣 又未經朞月 遠謝明時) [또 정강왕 晟은 光啓 3년에 돌아갔는데 본기에는 2년에 돌아갔다 하였으니 모두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다]

24) 九年 冬十月 立憲康王庶子嶢爲太子 初憲康王觀獵 行道傍見一女子 姿質佳麗 王心愛之 命後車載 到帷宮野合 卽有娠而生子 及長 體貌魁傑 名曰嶢 眞聖聞之 喚入內 以手撫其背曰 孤之兄弟姊妹 骨法異於人 此兒 背上兩骨隆起 眞憲康王之子也 仍命有司 備禮封崇. 三國史記 11卷-新羅本紀11-眞聖王-09年

이 기록에 의하면 嶢는 장성한 후에야 진성여왕에게 불러 들어가 등에 솟아 있는 두 개의 뼈로 헌강왕의 아들(眞憲康王之子也)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당나라에 보낸 <납정절표>에서는 요를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아직 태어난 지 한해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헌강왕이 살아 있을 당시 嶢가 헌강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그를 아들로 인정하지 못할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성여왕이 요를 불러들여 등에 솟아있는 뼈를 만져보고 그 골격이 자기 형제자매와 같다는 걸 확인하고서 그 혈통을 인정했다는 것은, 헌강왕이 요의 어미와 야합할 당시 그 어미가 처녀가 아니라 남의 아내였다는 걸 뜻하거나, 아니면 헌강왕과 관계를 맺은 뒤 남의 아내가 되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진성 여왕이 요를 헌강왕의 아들로 인정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를 태자로 임명할 당시에는 궁예 견훤 등이 일어나 영토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진성 여왕은 자신이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2년 후에 태자 요에게 양위를 하고 바로 죽은 것으로 보아 건강 또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진성여왕은 건강으로 보나 통치 능력으로 보아 더 이상 왕위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등에 솟은 뼈를 내세워서 요의 혈통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헌강왕이 11월에 혈성 별에서 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헌강왕 5년 즉 879년 3월에 “왕이 동쪽의 주군을 순행하였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 넷이 왕의 수레 앞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들의 모양이 무섭고 차림새가 괴이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산과 바다에 사는 정령이라고 하였다.(고기에는 이 사건이 왕위에 오른 첫해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렇게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민간의 여인과 야합을 한 년도와

처용의 출현 연도가 겹치는데, 주목할 것은 편찬자가 처용 등 신격의 대리자들이 출현한 시기를 古記의 기록과 다르게 비정하면서, 그 이유는 밝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삼국사기 편찬자의 기록을 따르면 처용이 출현한 시기가 헌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민간의 여인과 야합을 하기 8개월 전인 879년 3월이고, 古記의 기록을 따르면 875년이 된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기록자는 왜 고기의 기록을 따르지 않고 그 시기를 879년으로 확정했을까. 이를 앞에서 살펴본 헌강왕의 야합 기사와의 관련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헌강왕과 야합을 한 여인이 삼국유사에서 헌강왕이 처용의 마음을 머물게 하기 위해 맺어준 여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요의 혈통 문제는 온 나라를 떠도는 화제였을 것이며, 공공연한 사실에 해당하는 비밀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정이 단순한 추정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처용랑 망해사>가 신라의 망국을 예언하는 설화이면서 그 핵심에 헌강왕 및 처용과 처용의 처가 놓인다는 점, 그리고 태자 요 즉 효공왕이 출생과 관련해서 혈통을 의심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을 온전히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요는 미녀가 헌강왕의 주선으로 처용의 처가 된 뒤 헌강왕과 야합을 해서 낳은 아들일 수도, 아니면 먼저 헌강왕과 야합을 한 뒤 헌강왕의 주선으로 처용의 처가 되어 낳은 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러서야 인정을 받은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sup>25)</sup>

25) 동일한 사료를 바탕으로 김기홍 교수는 헌강왕이 행재소에서 민간의 처녀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된 것을 단초로 “개운포의 작은 바위섬에 용의 아들 처용이 상륙하고 헌강왕을 따라 상경하고 어찌어찌했다는 설화가 엮어져 갔던 것이며 그 바위는 처용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김기홍, 『신라 처용설화의 역사적 진실』, 『역사교육』 80, 역사교육연구회, 2001, 123~147면.

## 5. <처용가>의 의미와 그 성찰적 기제

주지하듯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처용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해석되고 있다.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에 보니, 가랑이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

배경 설화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의 <처용가>는 가상적 청자로서 疫神을 염두에 둔 방백적 노래라 할 수 있다. 역신이 그의 노래에 감동하여 앞으로 처용의 얼굴 그림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의 연구에서는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라는 배경 기사와 문맥을 고려하면서, 둘째 행 “들어와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어라”의 다리 넷은 역신의 다리 둘과 자기 처의 다리 둘을 뜻하는 것이라 해석해 왔다. 그리고, 셋째 행 전반부의 “둘은 내 것이고”의 다리는 자기 처의 다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넷째 행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들 어찌 하리오”에 대응되는 것이며, 셋째 행 후반부의 “둘은 누구의 것인가”의 다리는 역신의 다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렇게 역신과 자기 처의 간통 장면을 목도하고 자기 처와 역신의 다리를 거론하면서 자탄조의 독백적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간의 연구에서는 <처용가>의 작품성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해왔다. 여성의 性を 가랑이로 표현하는 한편, 그것을 뺏고 빼앗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속한 표현 형태를 염두에 둔 부정적 평가와, ‘간통 당사자인 역신조차도 감동시킨’ 아내의 간통 장면에 대한 처용의 태도를 염두에 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린 것이다.<sup>26)</sup>

그런데, 이러한 평가에 앞서 그간에 이루어진 <처용가>의 내용 이해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행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와 넷째 행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라는 구절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역신의 다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 온 셋째 행 후반부의 “둘은 누구의 것인가”가 처용 처의 다리를 뜻하는 셋째 행 전반부 “둘은 내 것이고”와 넷째 행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간의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온 이유는 배경 기사를 먼저 읽고 배경 기사에 맥락에서 <처용가>를 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경 기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처용가>를 먼저 읽는다면, 둘째 행의 후반부 “둘은 누구의 것인가”를 넷째 행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에 곧바로 연결하여 “둘은 누구의 것인가”의 다리를 처용 처의 다리로 이해할 것이며, 둘째 행 전반부의 “둘은 내 것이고”의 다리는 처용 자신의 다리로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둘째 행 “들어와 자리에 보니 가랑이가 넷이어라”의 다리 넷은 잡자리에 든 자신과 처의 다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처용가>만을 떼어서 본다면, 그것은 ‘서울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와 자리에 들고 보니 다리가 넷 있는데, 그 가운데 둘은 자신의 다리이고 둘은 자기 처의 다리라고 이야기 한 뒤, 자기 처의 다리는 애초 자기의 다리나 다름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라고 자탄하는 것처럼 읽혀진다. 이는 처용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통간하는 장면을 목도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태도를 통해 이미 다른 남성과

26) 정병욱, 「문학으로 본 처용가」, 『대동문화연구』 별집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2(『처용연구전집Ⅳ』, 역락, 2005, 126~130면 재수록); 박노준, 「처용가」, 『처용연구전집Ⅱ-1』, 역락, 2005, 217~246면; 황폐강, 「처용가의 미의식」, 『국어국문학』 61, 국어국문학회, 1973(『처용연구전집Ⅱ-2』, 역락, 2005, 13~49면 재수록); 최재남, 「처용가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81~86면; 신재홍, 「처용가의 감각」, 『고전문학과 교육』 23, 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77~198면.

간통을 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독백 형태로 탄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배경 기사를 제외하고 보면 <처용가>는 이미 자기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아내에게 느끼는 배신감을 체념적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처용가>의 화자가 자기 처와 간통을 한 역신을 목도하였으면서도 목도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눈앞에서 벌어진 아내의 간통 장면을 목도하고서도 목도하지 않은 것처럼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물러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헌강왕이 자신의 처를 범하는 장면을 보고 분노를 드러내면서 직접 따지는 대신, 오히려 그 장면을 목도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용의 태도가 뜻하는 바가 무얼까. 앞에서 추정한 대로라면, 처용이 목도한 아내의 간통 상대는 처용과 아내를 맺어준 헌강왕이다. 애초 헌강왕은 처용에게 ‘머물러서 자신의 왕정을 보좌하기를 바라면서 미녀를 아내로 맺어주었던(補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사람이다. 처용은 이렇게 자기와 아내를 맺어주었으며, 자신이 섬겨온 헌강왕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는 장면을 목도한 것이다. 그렇지만 헌강왕의 신하인 처용은 그러한 장면을 목도하고서도 그것을 직접 드러내어 이야기할 수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처용이 자기 처의 다리를 ‘빼앗긴’ 것이라 표현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목도한 사실을 감추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중적 효과를 연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강왕이 처용의 처를 처용에게 주었다가 물건처럼 다시 ‘빼앗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처용랑 망해사>의 기술자처럼 形을 감추면서 象을 통해 形을 유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헌강왕이 이렇게 처용에게서 ‘미녀’를 다시 빼앗아간 것은 단순 논리로 보면 처용에게 떠나라는 뜻을 표출한 것이며, 처용은 헌강왕의 뜻을 알아

차리고 떠난 것일 따름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라고 한 <처용가>의 네 번째 행은, 떠나는 자의 이야기로서 ‘자신이 현강왕에게 받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던 처의 다리, 즉 처를 다시 현강왕이 빼앗아 갔으니 떠나지 않고 어찌 하리오’라는 뜻의 현강왕을 염두에 둔 독백조의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처용 스스로의 독백적 발화 형태를 취하면서도, 현강왕에게 그의 행위가 ‘빼앗음’이라는 걸 환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현강왕을 향한 발화처럼 여겨지게 한 것이다.

그런데, 처용의 처는 단순히 뺏고 뺏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강왕은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위해 처용의 처를 물건을 빼앗듯이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내의 가랑이를 뺏긴 걸 어찌하리오’라는 처용의 체념적 독백은, 자신이 맺어준 신하의 처를 물건을 빼앗듯이 빼앗은 군왕의 행위를 보면서, 인간사에 대해서 느낀 처용 자신의 처절한 절망을 표출한 것이면서도, 현강왕의 패륜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효과를 연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배신감과 분노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현강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빠져서 자기반성을 유도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라는 처용의 체념적 독백은 처용의 처에게도 각성 효과를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빼앗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를 ‘빼앗김’으로 표현함으로써, ‘빼앗음’의 주체뿐만 아니라 대상 역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성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용의 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이다. 그러기에 설혹 현강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와의 관계에서 처용 처의 선택적 의지가 온전히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sup>27)</sup> 그런데도, <처용가>의 화자는 자기 처를 타자화 된 대상으로만 표현함으로써, 자기 처로 하여금 주체로서 자

27) 삼국유사에 소개된 도화녀와 진지왕의 관계, 또는 삼국사기에 소개된 개루왕과 도미의 처의 관계와 대비해 보면 이러한 상황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의 행위의 의미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게 한 것이다.

한편, 아내의 간통을 어쩔 수 없는 '빼앗김'의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처용의 태도는, 처용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아내와 헌강왕의 간통 장면을 목도하면서 처용은 그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 분노와 배신감은 처용이 자기 처를 '내 것(吾下)'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내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건조차도 영원한 자기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격적 주체인 인간을 '내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吾下)'이라는 관념적 허상을 벗어버리면 상실감으로 인한 분노와 배신감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처용가>의 화자인 처용은 자기 처의 간통 상황을 자기 소유의 '아내의 가랑이를 빼앗기는 것'으로 표현하여 관념과 실제의 불일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소유에 대한 관념과 감정의 덧없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처용은 이렇게 자기의 처를 '처의 다리'라는 점유적 대상으로 환원시켜 헌강왕과 처의 간통 장면을 그려냄으로써, 처에 대한 자신의 관념과 그로 인한 자신의 분노의 근원을 확인하고, 스스로 그릇된 관념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존재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욕망의 굴레를 벗어남으로써 자신과 대상 즉, 아내나 헌강왕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편, <처용가>는 역신 즉 헌강왕으로 하여금 자기가 저지른 행태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기 성찰적 계기로 작용하는 노래다. 역신이 <처용가>를 듣고 감복했다는 것은 악의 상징으로서의 역신과 같은 상태에 있던 헌강왕이 자기의 패륜 행위를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윤리적 인간 그리고 군주의 위치로 돌아왔다는 걸 상징한다.<sup>28)</sup> 이는 <처용가>가 서정시로서 感動天地鬼神의 극한적 감동 기제를 연출했다는 걸 뜻하는 것으로서, <처용가>가 시의 경계를 넘어 신성

28) 물론 이는 사실로서의 헌강왕의 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처용가>의 성찰적 기제를 상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적 주술의 경지로 승화되었다는 걸 상징한다. 처용의 형상이 그려진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역신의 맹세가 아니라도, 처용은 이미 <처용가>를 통해서 신성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疫神의 맹세는 <처용가>에 내포된 서정적 呪力의 상징적 표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6. 결론

<처용가>의 시적 상황으로서 처용 이야기는 처용의 이야기면서 헌강왕의 이야기이고 또한 역신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것이 헌강왕의 망국 설화로서 <처용랑 망해사>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 역시 헌강의 망국 설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처용 이야기를 헌강왕의 망국설화로 본다면, 처용 이야기의 또 다른 주체들인 역신과 헌강왕을 일치시켜 역신으로 상징된 실제적 존재가 망국설화의 주체인 헌강왕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요의 등뼈를 만져보고 헌강왕의 아들이 맞다면서 그를 태자로 임명했다는 진성여왕 기사, 사냥 중에 민간의 미녀와 관계를 했다는 헌강왕 기사, 처용의 출현에 대한 기사 등 삼국사기의 기록들을 통해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헌강왕의 아들 嶢가 십수년이나 지나 태자로 임명되면서 겨우 혈통을 인정받은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헌강왕의 야합 행위는 공공연한 사실이면서도 비밀로 여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감출수록 드러나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공공연한 비밀로서 헌강왕의 패륜이 疫神의 행위로 상징화된 것이다. “變”의 보어로서 疫神 실체에 해당하는 헌강왕이 생략된 것은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 대한 증상적 징표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變”의 의미를 패륜적인 역신으로 상징화된 헌강왕이 실제적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뜻으로 이해할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아내의 가랑이를 빼앗긴 상황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것에 대해 체념적으로 자탄을 한 <처용가>의 발화 형식은 이러한 <처용랑 망해사>의 기술 방식과 상동 관계에 놓인다. ‘빼앗음’의 주체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는 한편, ‘빼앗김’의 상황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가 목도한 사실을 그대로 언표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앞의 간통 상황을 아내의 가랑이를 빼앗긴 것으로 묘사한 <처용가>의 내용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각성 효과를 발휘한다. 자신의 처지를 아내의 가랑이를 ‘빼앗긴’ 것으로 묘사한 처용의 체념적 발화 방식은 현강왕으로 하여금 남의 아내를 물건처럼 주었다 빼앗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동시에, 처용의 처로 하여금 ‘빼앗긴’ ‘가랑이’로 치환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화자인 처용 자신에게도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대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을 유발하는 것이다.

<처용가>를 듣고 앞으로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역신의 약속, 그리고 처용의 얼굴 그림을 붙여 僻事進慶 했다는 풍속은, 처용의 존재 및 <처용가>가 일탈적 부부 관계에 대한 성찰 효과를 발휘했음을 뜻하는 것이며, 疫神으로 상징되는 타락한 권력으로부터 부부관계를 지켜내고 싶은 민중적 소망이 처용신에게 투사되었다는 걸 말한다. 한편, 처용무 및 고려 <처용가>가 국가적 행사인 나례 및 궁중의 정재 형식을 빌어 벽사 기능을 담당해 왔던 것은, 그것이 臣民의 부부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현강왕 같은 군왕의 패륜적 행위에 대한 경계적 의미를 담았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처용 의례는 군왕 및 상층 권력자에게 국가를 패망시킨 현강왕의 패륜적 탐락 행태 그리고 역신의 맹세로 상징화된 <처용가>의 성찰적 감동 기제를 환기시켜 국가적 안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 참고문헌

- 『三國遺事中』, 坪井九馬三, 李寬 校訂, 東京帝國大學, 1904, 31~32면.
- 『신정 삼국유사』, 최남선 편, 경성, 삼중당, 1946, 88~89면.
- 『삼국유사』, 이재호 역, 한국자유교육협회, 1968, 880~881면.
- 『삼국유사』,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75, 138~140면.
- 『원문역주 삼국유사』, 이병도 역주, 명문당, 1986, 67면.
- 『삼국유사인독』, 김용옥, 통나무, 1992, 51면.
- 『삼국유사(II)』, 강인구외 4인 역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25~126면.
- 『과른본 삼국유사 교감』, 연세대학교 박물관 교감, 혜안, 2016, 148~149면.
- 『三國遺事』, 靑柳綱太郎, 京城, 朝鮮研究會, 1914, 58면.
- 『三國遺事 考証(中)』, 三品彰英 撰, 東京, (土高)書房, 1979, 147~150면.
- 『郷歌及び吏讀の研究』, 小倉進平, 京城帝國大學, 小和四年(아세아문화사, 1974년 영인본), 181면.
- 김기홍, 「신라 처용설화의 역사적 진실」, 『역사교육』 80, 역사교육연구회 2001, 123~147면.
- 김동욱, 「처용가 연구」, 『동방학지』 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1, 1~20면.
- 김수경, 『고려 처용가의 미학적 전승』, 보고사, 2005, 27~42면.
- 김영수, 「처용가 연구의 종합적 검토」, 『국문학논집』 16호,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81~119면.
- 김학성, 「〈처용가〉와 관련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7~32면.
- 박기석,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읽기의 한 방법」, 『문학치료연구』 제1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65~184면.
- 박노준, 「처용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처용연구전집Ⅱ-1』, 역락, 217~246면 재수록).

- 박진태, 「곳의 맥락에서 본 처용설화와 처용가」, 『외국어교육연구』 4, 대구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1989(『처용연구전집Ⅲ』, 역락, 2005, 527~566면, 재수록).
- 서대석,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 『한국학논집』 1·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265~284면.
- 설성경, 「처용 전승의 구조적 연구」, 『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처용연구전집Ⅱ-1』, 역락, 2005, 101~108면 재수록).
- 손진태, 「처용랑 전설고」, 『신생』, 1930(『처용연구전집Ⅱ-1』, 역락, 2005, 1~10면 재수록).
- 신재홍, 「처용가의 감각」, 『고전문학과 교육』 23, 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77~198면.
- 윤영옥, 「처용가의 동경」, 『국어국문학』 78, 국어국문학회, 1978, 173~176면.
- 이우성, 「삼국유사소재 처용설화의 분석」,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처용연구전집Ⅲ』, 역락, 2005, 621~665면 재수록).
- 정병욱, 「문학으로 본 처용가」, 『대동문화연구』 별집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2(『처용연구전집Ⅳ』, 역락, 2005, 126~130면 재수록).
- 정병현, 「처용가 연구 서론」, 『논문집』 2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2, 63~79면.
- 정운채, 「<처용가>와 <도량 넓은 남편>의 관련 양상 및 그 문학치료적 의의」,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214~230면.
- 처용연구위원회편, 『처용연구전집(Ⅰ, Ⅱ-1, Ⅱ-2, Ⅲ, Ⅳ, Ⅴ-1, Ⅴ-2)』, 역락, 2005.
- 최성호, 「처용가 신석-문화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81, 국어국문학회, 1979, 5~25면.
- 최재남, 「처용가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81~86면.
- 홍재휴, 「처용랑 망해사 설화의 校訂字 辨正-처용랑 夫妻의 관용, 不貞說 辨政을 위한 주석적 고구-」, 『여성문제연구』 8집,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9, 85~106면.

황병익, 「역신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고찰」, 『정신문화연구』 34권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27~151면.

논문투고일: 2016.04.04. 심사완료일: 2016.06.03. 게재확정일: 2016.06.09.

**Abstract**The Symbol of Yuk-Sin(역신) And The Impress System of  
<Cheyong-Ga(처용가)>

Park, Il-yong

In main story of <Cheyong-Rang Manghaesa(처용랑 망해사)> it seems that the main chracters are Heongang King(헌강왕) and guardian gods of the state. But in the part of poetic situation of Cheyong-Ga(처용가) it seems that the main chracters are Cheyung(처용) and Yuk-sin(역신). So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relations between Heongang King(헌강왕) and Yuk-sin(역신). But consider that Heongang King(헌강왕) behave as god, and Cheyung(처용) is the agent of east-sea dragon, we can reason that Yuk-sin(역신) is the symbol of Heongang - King(헌강왕).

Then we can say that Cheyong(처용) left Silla because of Heongang King(헌강왕) had raped Cheyong's(처용) wife. Heongang King(헌강왕) is the man who had arranged the marriage of Cheyong and his wife. And yet he raped Cheyong's(처용)wife. So writer symbolized Heongang - King(헌강왕) as yuk-sin(역신). And Cheyong tells in Cheyong-Ga(처용가) as if he had'nt seen the Heongang King(헌강왕). But in Cheyong-Ga(처용가) he aimed at Heongang King's(헌강왕) self introspection.

key words : <Cheyong-Ga(처용가)>, <Cheyong-Rang Manghaesa(처용랑 망해사)>, Heongang King(헌강왕), Samkook-Sagi(삼국사기), Samkook-yoosa(삼국유사)